

제주소피아 열 네 번째 이야기

‘바람’ 을 열며

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 편집부장
철학과 09학번 강지승입니다.

이번 제주소피아의 주제는 ‘바람’으로 정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은 ‘바람’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봄이 다가오며 선선하게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떠올릴 수도, 혹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 밖에 많은 것들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를 말하자면 처음에는 주제를 ‘희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밋밋하다 느껴져 고민하던 중 작년 학과 축제 ‘미네르바의 향연’의 주제였던 ‘청춘바람’에서 ‘바람’만을 본떠왔습니다.

저는 ‘바람’이 청춘에만 국한되지 않는, 우리의 삶 내내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니며 마음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어자체가 중의적이라 제주를 대표하는 삼다(三多)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앞서 고려했던 ‘희망’이라는 주제와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저와 편집부가 제주소피아를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소피아를 준비하는 저희 편집부는 주제를 빌어 철학의 대중화라는, 철학과의 가장 큰 바람이 제주도에 몰아쳐 휩쓸고 밖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제주소피아를 읽으시는 분들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편집하겠습니다.

■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 '바람' 을 열며

이번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 '바람'은 예년과는 다르게 다소 형식을 바꾸어 졸업하는 학우들의 논문을 시작으로 교수님과 학우들의 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매력철철의 발자취를 훑으며 편집을 끝내게 됩니다.

- 첫 번째 바람 - 철학의 대중화
- 두 번째 바람 - 바라던 대학생활
- 세 번째 바람 - 인연과 추억

교수님들과 철학과 학우들의 글을 보며 지난 2013년을 회상하고 다가오는 2014년에 새롭게 품게 되는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년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는 어느 때,
편집부장 09학번 강 지 승